

2023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아세안 권역



쿠데타 시기 이후 미얀마에서의 삶

정승백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 그 한국에서 마지막 미지의 땅, 황금의 나라 옛 수도 미얀마 양곤에 온 지도 어느덧 만 6년이 되었다. 올 때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둘이 되었다. 좋은 미얀마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2021년 02월 01일 새벽, 인터넷과 전기가 끊겼다. 자주 있는 일이라, 그리 염려하지 않고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들려오는 소리 “군대가 주요 도로를 차단하고 있다.” 황급히 한인회에 연락을 시도해 보려 했지만 유선전화는 말할 것도 없고 무선전화, 인터넷, 와이파이 모든 것이 차단되어 더 불안했다. 아직 어린 아내는 더더욱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외부와 단절된 삶... 전기가 끊기니 이내 물 또한 끊어졌다. 그로부터 하루 뒤 알게 된 사실은 총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3개월 뒤 본격적으로 군인과 경찰은 맨손으로 자유를 외치는 미얀마인들을 군화발로 짓밟고, 총으로 다스리기 시작했고, 또 그로부터 3개월 뒤에는 자유를 외치던 사람들의 손에 사제 폭탄과 총기가 들

려 있었다. 또 다시 3개월이 지나자 양곤에는 간헐적인 총소리만 들려왔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 총소리가 민초들을 괴롭혔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사람들은 군인들을 좋은 싫든 같이 살아야 하는 상대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다. 별별 떨던 아내도 처제와 시장에 나갔다 아이스크림을 물고 오고 있다.

코로나19는 어느 정도 억제가 되었고 이제 국민을 괴롭히는 것은 전염병이 아니다. 가난했던 나라에서 군부의 폭정으로 더더욱 가난해진 국민들이 견디다 못해 줌도둑으로 변해가고 있다.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 “줌도둑이 극성이니 문단속을 잘 해라”일 정도니 말이다.

“경찰이 모든 것을 지켜 줄 수 없다. 본인의 집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처음 듣고 믿기지 않아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모두가 조심하고, 모두가 경계하는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다.

나는 지금 외국인이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저 오늘도 아무일 없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할 뿐이다. 아내 끼니를 굶길 수 없는 노릇이니...

처음에는 진지하게 아내와 한국으로 돌아갈까 상의했으나, 이제는 괜찮다. 다시 어느 정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군부가 통치를 잘 해서가 아니라 모두들 굶을 수 없으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미얀마에 아직 희망을 가진다. 처음 미얀마 양곤에 왔을 때와 다르지 않은, 새벽 6시면 울리는 종소리와 탁발을 하고 있는 스님들을 집 앞에서 맨발로 기다리며, 시주를 하는 어른들, 항상 밝게 웃고 있는 어린이들... 집 앞 마을회관에서는 종종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음식 기부 릴레이도 심심치 않게 열리고 있다.

정치적인 불안정이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

으나, 그들의 삶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이러한 시련은 국민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얀마인들은 아직 그들을 위한 지도자를 맞이하지 못했을 뿐이며 아직 시간과 기회는 있다.

현재가 아니라면 우리 후손이 그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꼭 우리에게 그 기회가 오지 않아도 괜찮다. 후손을 위해 묵묵히 준비를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일 것이다.

어느덧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등을 생각하고 묵묵히 해 나가고 있다. 외국인인 내가 해야 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기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고 있다. 나의 조국은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조국, 나 또한 사랑하게 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후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